

중국 '친일문학' 연구의 시각과 쟁점(1)

신 정 호*

<目 次>

- | | |
|--|----------------------------------|
| I. 머리말-중국 측 연구자들의 태도 | 2. 華北文壇：華北文藝協會에서 中國文學協會華北分會 |
| II. 문학조직(文學組織)의 동태 | 3. 華東文壇：南京 上海의 中國作家聯誼會와 《작가(作家)》 |
| 1. 東北文壇(滿洲國)：大連의 文話會로부터 新京의 總務廳弘報處(<藝文指導要剛>) | 4. 臺灣：臺灣文藝聯盟에서 臺灣文藝家協會 로 |
| | III. 맺음말 |

I. 머리말-중국 측 연구자들의 태도

본 논문의 말미에 첨부된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필자는 중국 대륙과 북한의 학자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된 중국 측 '친일문학'에 관한 체계적 연구 저작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점은 근년 한국과 타이완에서 관련 문제가 활발히 토론되고 있는 상황과는 꽤 대조적이다. 필자는 중국 대륙의 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면 때로는 정면에서 때로는 측면에서 그 원인에 대해 질문해보곤 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구생의 처지에서 그 후론 동도인의 입장에서 관련 대화를 나누어보았지만, 대담다운 대답을 듣지 못했다. 물론 나름대로 심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관련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 싶었던 터였다.

* 목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필자가 들은 했던 대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이다. 우선 관련 작가나 작품이 중국현대문학의 전체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아주 적다는 것이다. 요컨대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반(反)혁명적 친일문학에까지 할애하기에는 지면이 아깝다는 설명이다. 베이징(北京)에서 활동하는 관변 학자들의 친편일률적 대답이 이에 속한다. 둘째, 친일문학은 근본적으로 문학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치 없는 문학적 행위였다는 점이다. 鍾肇政 葉石濤 主編의 《光復前臺灣文學全集》[1-12](臺北, 遠景出版社, 1979~1982), 張恒豪 主編의 《臺灣作家全集》[日據時代·短篇小說卷 1-10](臺北, 前衛出版社, 1991), 錢理群 主編의 《中國淪陷區文學大系》(第1-7集)(桂林, 廣西教育出版社, 2000)가 관련 작품을 수록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셋째,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동질적인 것은 북돋우고 이질적인 허물은 덮어두는 중국인 특유의 역사 인식이 문학사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왕징웨이(汪精衛) 국민정부가 소재했던 난징(南京)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에게서 이런 태도는 두드러졌다. 모두 다 일리 있는 대답이지만 변명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관련 작가 작품이 너무 많고 면밀한 자료 정리와 분석 작업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상하이(上海)에 거주하는 어느 노학자의 대답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증언이라고 여겨진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앞에 소개한 대답들은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개별 연구자의 입장에 대한 결과론적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의 의문은 개별적 연구자들의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집단적 태도에 관련된 문제다. 왜냐하면 필자의 생각에는 이 문제가 무의식 차원에서 집단적 망각을 동반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친일문학에 대한 중국 대륙 측 연구자들의 무조건적 무시 내지 비판 일색은 분명 집단적 무의식에 관련된 문제이고, 나아가 이는 필시 구체적 경험의 공유에서 비롯된 역사적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역사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방향에서 진단하고 있

다. 하나는 자료접근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처한 역사적 현실이다. 첫 번째 문제는 연구자 개인의 근면성과는 구별되는 문제다. '반(半)제국주의' 시기의 문학사료, 특히 일본의 통치 하에서 혹은 일본의 출판 법령의 적용을 받고 발행된 출판 자료를 접근하는 과정에 혹은 접근 후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개인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상회한다. 영인, 인쇄, 출판, 발행은 더욱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요컨대 혁명과 반(反)혁명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점은 현재 모든 출판물(전자출판 포함)에 '책임편집(責任編輯)'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제도적 장치를 고려한다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위의 요소보다 필자가 더욱 주목하는 부분은 연구자(어쩌면 모든 중국인)들이 공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선적 자의식이다. 거칠게 말해 '친일문학이 이민족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어용문학의 일종'이라고 정의할 때, 실정법상 점유의 경우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이민족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설령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용문학을 어용문학이라고 명확히 천명하고 평상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측 연구자들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을 스스로 고려할 때 친일문학 연구와 관련한 지적 학문적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짐짓 위선적이라는 자의식이 앞서지 않겠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친일문학연구는 다음 몇 가지 큰 틀 내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첫째 중국에는 '친일문학사' 류의 저작이 없고 '피점령지역(淪陷區) 문학사'만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친일'문제를 타율적 강요, 자발적 참여, 개인적 참여, 조직적 동원 등 내적 외적 동기로 입체화하여 바라보기 보다는 국가권력 간의 도덕문제로 치환하여 피해자의 전일적 입장을 전제한 채 바라본다는 점이다. 항일, 반파시즘, 국민문학, 민족문학 등의 이데올로기가 문학사에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徐迺翔의 《中國抗戰時期淪陷區文學史》(福州, 福建教育出版社, 1995.7.), 孫中田, 黃萬華 등 4인이 공저한 《鏡铐下的繆斯-東北淪陷區文學史綱》(長春, 吉林

大學出版社, 1999.11.) 같은 연구서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저서들은 친일문학을 일제의 강요에 의한 외적 동기에서 기인한 문학사 현상으로 부각하고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한간문학(漢奸文學)”으로 일률적으로 매도하고 그 내적 논리의 다면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 중국 대륙의 학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인식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1979년 이후 특히 1999년을 전후로 지금까지 타이완에서는 이러한 이분법 구도가 깨지는 외중에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세를 입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타이완의 정체성, 즉 타이완민족주의를 기초로 한 독립국가 이데올로기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침화(侵華)문학’이라는 각도에서, 친일문학을 수출한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日本對中國的文化侵略》(北京, 昆侖出版社, 2005), 《“筆部隊”和侵華戰爭》(北京, 昆侖出版社, 2005), 《日本右翼言論批判》(北京, 昆侖出版社, 2005)은 사계의 주목되는 대표적 연구 성과이다. 관련 연구는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밝혀내는 미덕이 강하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반일(反日)이라는 정서적 기제를 동반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문화권력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민족주의 문학의 강화라는 목표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점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여기에 가로놓여 있다 하겠다. 물론 이 경우도 친일문학을 “한간문학(漢奸文學)”으로 개괄하고 일률적으로 매도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10년간 중국 대륙, 구 ‘만주국’ 지역(중국의 동북 지역), 타이완 지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친일문학 관련 자료는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제출한 연구 결과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논리도 항일/한간 이분법적인 매우 단순한 구도 속에 갇혀있다.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민족주의 입장에서 중화 대 일본 구도를 고착화하는 항전문학론(반일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타이완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친일문학동정론으로 반공 국민문학론(반중문학) 구도가 그

것이다. 타이완 대 중국 구도를 대만민족주의 대 중화민족주의 구도로 볼 때, 최근 10년의 논의는 결국 1940년대 중국의 지식인들이 전쟁의 와중에서 제출한 민족주의문학 대 반(反)민족주의문학 구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40년대에는 한문학(漢文學) 대 반(反)한문학의 구도가 자못 유행했으며, 1940년 봄 저우취런(周作人)이 집필하여 발표한 <한문학의 전통(漢文學的傳統)>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문학사 인식들은 오족(일본민족, 조선족, 만주족, 몽고족, 한족)의 협화 논리를 앞세워, '만주국', '화북지구', '화남지구', 타이완을 분할 통치하기 위해 국민문학의 생산을 부추겼던 당시 일본의 아시아 정책에 근거할 때 너무 소박한 인식들이 아닌가 싶다. 일본 측 우익 연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민족문학사'의 정당성을 앞세우는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자들의 '융합구문학사'와 국민문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환기시키는 타이완의 타이완민족주의자들의 '타이완문학사'가 모두 친일문학의 실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친일문학 연구는 중국 내지의 화북지역과 화동지역, '만주국', 타이완 지역에서 크게는 같은 논리로 세부적으로는 다른 논리 하에 양산된 다양한 친일문학의 실제적 접근과 더불어 각 지역 간의 관련 조직, 본부와 지부를 통한 유기적 동화 정책의 수출입 등을 통해 친일문학의 총체적 실상을 유기적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개별 작가의 각각의 작품에 대한 실제적 접근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중국문학사의 틀 속에서 혹은 타이완문학사의 틀 속에서 민족/반민족 구도에 갇혀 친일문학에 대해 내리는 도덕적 재단을 중지하고 친일문학의 논리, 각 민족간의 모순, 각 민족 내부의 갈등 등등 문제에 대해 입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현재 다민족 국가를 구성하고 대내적 민족 모순을 안고 있는 중국의 중국문학사의 실제와 허구를 묻는 일이며, 타이완 민족주의의 근거를 되묻는 일과도 관련이 깊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면 중국이 처한 대내외적 역사적 현실은 어찌

면 자료 접근에서 말미암는 위험성 보다 더욱 은근하고 내밀하게 연구자들의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바꿔 말하면 국가이성과 날카롭게 대치하거나 혹은 국가이성을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지점에서 중국 측 연구자들은 왜곡된 자의식의 재생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중국의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영토의 침략과 지배라는 물리적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언어의 지배, 민족 모순, 역사의 왜곡 등 문화 침략에 대한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는 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 민족 내지 민족문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이성의 지점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각 민족간의 평등 원칙과 도덕률을 함께 공유하는 인식들이 전제되어야 할 터이다.

관련 논의는 문학조직, 비평가, 작가 등 몇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고찰되어야겠지만, 본고는 우선 예비 고찰의 과정으로 우선 친일문학 단체 조직에 대해 토론하기로 하겠다. 필자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현대 중국의 지성사 내지 정신사를 충분히 담보하는 중국문학사야말로 중국문학사다운 중국문학사라고 보고 문학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역사학의 학리적 지평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친일문학의 양적 빈도 내지 분포 문제로부터 한걸음 물러서서 친일문학 논리를 생산하고 조직적으로 전개한 문인 단체의 형성과 성격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일차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밝혀둘 일은 타이완의 문학이 중국문학이냐는 점인데, 197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장제스(蔣介石) 사후 급속도로 성장한 타이완 민족주의를 감안하면 관련 논의가 전제되어야겠지만, 본 논문의 고찰 대상인 친일문학의 문제가 20세기 전반기 즉 청조(淸朝)로부터 통치권을 할양받은 일제강점기 타이완의 시공에 국한되는 논의인 만큼 일단 중국문학의 범주로 보고 지방문학사로서 타이완문학사의 입장에서 타이완의 친일문학도 포괄하려고 한다. 물론 타이완은 남진론의 충실한 전초기지로서 중국의 내지나 '만주국과는 전혀 다른 맥락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II. 문학조직(文學組織)의 동태

중국현대문학 작가들은 흔히 문단 형성의 기원을 '문학연구회'와 '창조사'의 출범으로 본다. 인생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던 전자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했던 후자는 1920년대 중국의 문단을 양분하다시피 했다. 일본에 유학한 신진 문예이론가 그룹은 창조사를 재조직하여 태양사를 조직하고 프로문예의 진영으로 삼았다. 이를 계기로 중국에는 루쉰(魯迅)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자유주의 진영의 문단과 진보 진영의 문단이 서로 대립하는 국면을 형성했다. 물론 루쉰은 국민당의 실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진보진영의 문학적 노력에 대해 상대적 지지와 동지적 애정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말 신예 진보이론가들이 루쉰을 부르주아 반동 문인이라고 비판하며 문단의 헤게모니를 탈취하려고 기도했다. 이와 같은 프로문예이론의 중국 내적 파괴력은 극좌적 경향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바라보며 반제애국운동을 필요로 했던 중국인들에게 일정한 작용력이 있었다.

좌익문단의 내적 대립은 1930년 좌익문예계연맹의 성립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대립과 분열은 민족적 과제인 항일운동의 문학적 전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국방문학(國防文學)”과 “민족혁명전쟁의 대중문학(民族革命戰爭的大衆文學)”이란 두 구호 아래 대립한 문단의 충돌이 그것이다. 문단의 대립은 1936년 봄 좌련의 해산과 같은 해 가을 루쉰의 서거로 해소 상태로 접어들지만, 중일전쟁의 발발(1937.7.7.)로 말미암아 중국 내지(內地)의 작가들은 일제의 물리적 시공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면 대만과 동북 3성의 문인들이 각각 ‘대만할양(1895)과 ‘만주국’ 건국(1932)을 계기로 일본의 직접적 통제 하에 놓인 것과 비교해 시기적으로 다소 후의 일이 된다.

그렇다면 중국 내지의 문화통치는 만주국, 타이완과 비교해 훨씬 후의 일이 되는가? 그곳의 통치 모델이 중국 내지의 통치에 적용되는가? 결론

부터 말하면 아니다. 1937년 8월의 베이징 함락, 상하이의 “고도(孤島)시기”(1937.11.12.~1941.12.7)에 이은 함락(1941.12.9), 우한(武漢) 삼진의 함락(1938.9.25)을 생각하면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문단 형성의 시공적 물적 토대는 제로 상태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공백은 곧바로 일본의 통치가 점령해오기 시작했다. 반면, 비록 1932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만주국 문교부 주관 하에 불온서적을 소각했고, 7월 만주협화회를 발족한 사실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1936년 9월 28일에 이르러서야 ‘滿洲國弘報協會’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활동했다든가 1936년 6월 《대만신문학》 중국어판이 폐간되고, 1937년 1월 7~8일 《대만신민보》 중국어판이 폐간되었다는 사실은 중국 내지와 ‘만주국’, ‘타이완’ 지역의 문화 통치는 동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현대문학의 발전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동원 내지 집단적 참여 형태의 친일문학이 존재하는가? 물론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기에 시작되고, 그러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뒷받침했던 내적 논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 문제는 크게 두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중국 현지에서 일본이 조직한 문화 권력 기구의 편제 내에 구성된 어용 문화인 조직의 구성, 해체, 재구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국인의 참가 여부를 추적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 국내 어용 문인 조직과 중국 내부의 그러한 조직과의 문인 대회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만주국의 수립으로 비로소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실질적 정식적 중국의 경영이 가능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만주국 내부의 관련 사정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1. 東北文壇(滿洲國) : 大連의 文話會로부터 新京의 總務廳弘報處
(〈藝文指導要綱〉)

주지하듯이 만주국은 1931년 일본이 ‘9.18사변’을 통해 선양(沈陽)을 점령하고 일주일 안에 급속도로 지린성, 료녕성을 점령한 후, 익년 2월 하얼

민을 침공하여 이른바 동북 3성을 피죽지세로 손아귀에 넣은 후 같은 달 19일 '동북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를 꼭두각시로 옹립하여 3월 9일 정식으로 수립된 괴뢰정부 국가라 하겠다. 푸이는 연호 大同을 사용하여 '집정'했으며, 수도는 新京(長春)에 정했다. 일본관동군사령부가 신경(장춘)으로 이전했음은 물론이다. 만주국 통치에 수요 되는 엘리트 양성을 위해 만주국의 수도에 7월 1일 만주대동학원을 개교했다. 그리고 '만주국'의 문화를 일본에 동화하는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7월 新京(新京)에 만주협화회(協和會)를 발족 시켰다. 신속한 행보이고 치밀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명 장춘을 국가의 수도에 걸맞게 新京(新京)으로 고치고, 선양(瀋陽)을 평티엔(奉天)으로 고친 점은 그러한 치밀함을 웅변한다 하겠다. 1934년 3월 1일 만주국은 만주제국으로, 푸이(溥儀)는 황제로, 연호는 康德으로 각각 바뀐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체제는 지속된다.

그럼 중국 동북지역 내부의 일본에 의한 문화 통제는 만주국 건국 이후의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일본은 1931년 9.18사변을 일으켜 심양을 점령한 후 익일 따리엔(大連)에 본부를 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하부 조직인 '일중문화협회' 성명을 통해 '반일언론'을 유포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물론 일중문화협회가 만주국 침략의 하위 파트너 기능을 시종 수행해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기관에 경고를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 상황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비록 이에 대해 중국 동북지역에서 실질적 항일운동의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이 당 중앙의 명의로 즉각 <中國共產黨爲日本帝國主義強暴占領東三省宣言>(9.20)을 내고, 中共滿洲省委에서 <日本帝國主義侵佔滿洲和目前黨的任務>(9.21), 中共中央에서 다시 <關於日本帝國主義強佔滿洲事變的決議>(9.22) 등과 같은 선언 및 결의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작용을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은 복종하지 않는 언론 기관을 폐쇄시켰다. 《신민만보》가 가장 먼저 된서리를 맞았으며, 《만주보 성기부간》, 《태동일보 문예주간》 등 수 많은 신문 및 문예란이 줄줄이 정

간 혹은 폐간 당했다.

그러나 일본이 만주국 성립 초기부터 어용문학을 양산하고자 대대적 정책을 서두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일 정서를 담은 문학/문예를 봉쇄하는 데 정책의 중심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1932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만주국 경영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진보적 책자 6백여 만 책을 만주국 문교부 주관 하에 수집 소각한 것은 대표적 경우이다. 7월 만주협화회를 발족하고, 10월 13일 만주국 정부 명의로 52개조에 달하는 《출판법》을 선포 했으나, 1935년 《대동보》에서 자사 주최 문예 작품 공모에 당선 작품을 모아 낸 <만주제국 국민문고>에 일본의 침략 논리에 동화되거나 아첨하는 자발적 친일 작품이 섞여 있었던 사실을 제외하면, 1936년 4월 발의된 만주홍보협회법(홍보협회 조직안을 확정된 것은 5월)에 근거해 동년 9월 28일 장춘에 “滿洲國弘報協會”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盛京일보》 주관으로 만주문예 진흥을 위한 “성경문학상” 작품 공모가 있기까지 공개적, 조직적 어용문학 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주국에서의 조직적 문인 동원과 어용 문학 창작 지도는 1937년 봄과 초여름에 구체화 한다. 동년 3월 29일 滿洲圖書株式會社를 설립하여 國策도서와 기타 建國精神을 선양하는 책자를 대량으로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18일에 일본 문화인 5인에 의해 만주문화회 창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드디어 6월 30일에 이르러 발기회원 104인을 중심으로 회원간의 연락 및 우호, 그리고 만주문화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파리엔에서 만주문화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그들은 《만주문화회통신》(월간), 《만주문예연감》를 발행하고 “만주문화회상”도 제정하여 수여하였다. 1939년 8월에 이르러 만주문화회는 분부를 신경(장춘)으로 옮기고 본래 문학 조직 중심이었던 조직을 문학, 미술, 음악, 영화, 희극 등으로 확대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沈陽、大連、齊齊哈爾、哈爾濱、北京、東京 등 지역에 지부를 설립했다. 전체 회원은 최대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문화회는 만주국의 직제 개편으로 말미암아 해산되고 총무청 홍

보처의 전일적 통제 하에 만주국의 문예조직은 포섭된다. 신경은 만주국의 국도로서 정치의 중심지였지, 문화의 중심지는 아니었다. 문화회의 타격은 예상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국책기구 만주국 홍보협회의 해산(황령 51호 1936.4.7 근거 설립 1940.12.27 해산)과 국무원 총무청 홍보처로의 직능 이관, 즉 홍보처의 제1과제나 다름없었던 “예문지도요강”의 발표(1941.3.23)와 관련이 깊다. 요강을 발표하고 홍보처는 즉각 문예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주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는 문화회의 흡수 통합이었다. 당연히 문화회는 반발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다. 요강 발표 후 만주국에서 문화조직의 출범과 활동은 일사천리로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전후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1년 3월 23일 “예문지도요강” 발표
- 동년 5월 15일 《문화회통訊》 정간호 발간
- 동년 7월 5일 만주극단협회 창립
- 동년 7월 27일 만주문예가협회 창립(꾸멍 古丁, 우랑 吳郎, 쥐에칭 爵靑 3인 위원 자격으로 참여, 위원장: 山田滿三郎)
- 동년 8월 10일 만주악단협회 창립
- 동년 8월 17일 만주미술가협회 창립
- 동년 8월 25일 이상 4개 단체를 총괄하는 만주예문연맹 창립
- 동년 11월 《예문통신》 《문화회통訊》을 대체함
- 동년 12월 예문사의 종합문화잡지 《예문》 창간
- 1943년 11월 기관지 《예문》(일어) 만주문예춘추사 발행
- 1944년 1월 기관지 《예문지》(중국어) 예문서방 발행
- 동년 11월 만주예문연맹을 만주예문협회 개편

만주예문연맹의 4개 단체 가운데 자연히 주도권은 만주문예가협회에서 가지고 있었다. 1943년 1월 12일 만주문예가협회 평의회의 발의와 결정으로 조직 개혁을 결정하고, 1944년 11월 1~3일 간 만주예문연맹을 만주문예협회로 개편하며 창립대회를 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1941년 봄 그러니까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 다시 말해 일본 내지에서 문학보국회가 출범(1942년 6월 8일)하기 훨씬 이전 만주국에선 이미 국책에 복무하는 문화조직의 출범에 열심이었던 집이다. 다른 하나는 만주문예협회로 혁신을 단행한 만주문예가협회 평의회는 1942년도 논의 분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1941년 겨울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만주예문연맹이 지향하던 “건국정신”, “八一宇大精神” 등은 이제 가일층 적극적으로 해석되어 전시동원에 복무하는 기구로서의 임무를 자각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내지로부터) 이식된 일본의 문예가” “본(만주국 내부) 지역 제 민족의 고유한 예문보다” 우수하다는 “예문지도요강”의 취지는 이 지점에서 현실적 강제력을 부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학보국회의 출범과 중국 내 연계 활동을 검토할 때 각별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만주문화회가 北京, 상하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 회원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중국 내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華北文壇：華北文藝協會에서 中國文學協會華北分會

1937년 여름 일본 당국은 베이징을 점령했지만, 동년 12월 13일 남경의 국민정부를 함락하기까지 군사 작전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1937년 12월 24일 발족한 어용 조직 “중화민국 신민회”의 출범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준다. “중화민국 신민회”는 1932년 7월 신징에서 발족한 “만주협화회”와 같은 성격의 조직으로서 현지의 동화 정책을 문화적으로 실천하는 전위조직이자 동시에 문화통치의 침단조직이었다.

1937년 12월 13일 일본군은 난징을 함락시킨 후, 익일 즉시 왕커민 王克敏을 앞세워 “중화민국임시정부(中華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었음을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선포했다. 정부 수립 당일 내정, 경제, 방공에 관한 3대 방침, 동아시아 정책, 대외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요지는 국민당 일당 독재를 깨끗이 일소하고, 용공정책을 절대 배격하며, 동아시아의 도의인 민족협화 정신을 기초로 인근 나라와 우호적 교류를 공유함으로써 진정한

친선 합작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열흘 후 중화민국임시정부는 “중화민국 신민회(中華民國新民會)” (<大學>의 첫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면 ‘친민회’라는 번역이 가능하다. 본문에서는 신민회로 통일함.)를 출범시키고 베이징에 “중앙지휘부(中央指揮部)”를 설치했으며, 익년 1월 20일 중국 화북(華北) 지역을 관장하는 일본군 사령부를 텐진(天津)에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동년 5월 4일에는 “화북개발주식유한회사 華北開發股份有限公司)” 또한 설립하였다.

“중화민국신민회(中華民國新民會)” 출범 이후 문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중국의 화북 지역에 합락후 처음으로 조직된 문예단체는 “화북문예협회”였다. 1941년 1월에 성립하였다. 발기인은 張鐵笙、陸离、張我軍 등이다. 출범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80인 教育總署督辦 저우쥘런이 대표를 파견해 치사하고 훈화했으며, 내빈대표 錢稻孫이 축사를 했다. 동년 4월 15일 좌담회를 개최해 어떠한 방향의 문학을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요지는 “화북 문예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중국 일본 만주의 문예를 어떻게 소통 시킬 것인가”, 문학청년들의 문예 창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등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5개월 후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협회는 돌연 해체되었다. 이는 중국인들로만, 중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문인 단체와 정치 환경의 낙차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 배후에는 문학다운 문학을 써낼만한 작가들이 모두 베이징을 떠난 사실이 가로놓여 있다. 과연 신민회의 기관지 《신민보》에서 화북 문단의 침묵을 해소할 것을 호소하며 “청년작가협회”를 발기하려던 호소(1938.3.5)가 허언은 아니었던 셈이다.

화북 지역에서 당국의 주목을 받으며 출범한 “화북작가협회”야말로 “신민회”가 기대하던 첫번째 문단 조직이었다. 작가협회는 “화북 작가 정신의 단결을 통해 문예 학술 작품 창작의 발전을 촉진하고, 화북 문화의 재건과 국민의 중심사상 확립의 일환으로 신국민운동을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해방을 완성한다”는 데 설립 취지를 확정했다는 사실을 이를 잘 설명해준다. 창립대회 겸 제1차 전체회원대회가 1942년 9월 13일

열렸을 때 教育總署督辦 저우취런이 친히 왕립하여 축사(그는 제1대 평의회 회장 직을 맡았다.)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일본문학보국회와 만주문예가협회에서 보내온 축전을 받았음은 이 조직의 위상을 잘 말해준다. 실제로 작가협회가 내건 9항의 사업 가운데 대외 및 국외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만주국과의 연락을 강화한 점은 이 조직이 문학과 예술의 발전을 대동아건설의 방향과 일치시켰음을 잘 말해준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은 민중단체의 자격으로 신민회중앙총회가 주관하는 각종 정치집회에 참가했고, 천거를 받아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출석했으며, “대동아문학상”의 수상 후보로 추천받았다.

1944년 이후 “화북작가협회”를 겨냥하여 베이징 지역의 작가들을 전국 조직에 포섭하려는 “중국문학협회 화북분회”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이는 1942년에 동경에서 개최된 “대동아문학자대회” 직후 화동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된 “중국문화인협회” 조직의 필요성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화북, 화동, 화남, 화중을 포괄하는 전국적 문인 조직의 출범이라는 점은 계승적 측면이지만, 오히려 왕징웨이 국민정부의 선전부에서 주동이 되어 베이징에서 베이징문화계회의를 열고 전국 조직 “중국문학협회”의 회칙을 통과하여 반강제로 발족시킨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베이징 측의 반발이 그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문학협회 화북분회”가 명목상 성립한 것이었음은 1944년 4월 23일로 예고된 성립대회마저 열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출범했다고 보기 곤란한 조직이다. 실제로 일본문학보국회의 두터운 지지를 입고 있던 “화북작가협회” 주요 멤버들은 “문학운동가”들 끼리나 하라고 반발하고 있었다. 왕징웨이 정부로부터 소외당한 화북 지역의 정서를 함께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1944년 11월 12일 제3회 대동아문학자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전국 조직의 명목으로 “중국문학연회”가 가까스로 열렸다. 참가자는 바로 이튿날 대회에 참석이 결정된 화북, 화중, 화동 문인 대표들이었다.

주의할 점은 그렇다고 “화북작가협회”가 친일 활동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협회는 협회대로 9월 24일 베이징호텔에서 주화북 일본 파견군 보도부부장, 화북정부위원회 정보국국장, 신민회중앙총회신전국 국장 일본 측 내빙 100여명, 회원 200여명을 모시고 “결전문학자대회”를 열어 “대동아성전”에 임하는 “정신동원”을 통한 “문학보국”을 결의했던 것이다. 결국 중국 내 문단, 즉 친일 문단의 헤게모니 다툼이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편일 것이다.

3. 華東文壇：南京，上海의 中國作家聯誼會와 《작가(作家)》

1940년 3월 30일 왕징웨이의 국민정부가 난징에서 수립되자 베이징의 임시정부는 화북정부위원회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정치권력의 중심이 일순간 화북에서 화남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실제로 난징의 ‘중국 국민정부’ 아래에는 ‘만주국’을 제외한 전 중국의 친일권력이 모여든 셈이었다. 왕징웨이의 국민정부가 지향하는 문화 건설의 방향은 “평화문학(和平文學)”이었다. 따지고 보면 평화문학은 1939년 왕징웨이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했던 홍콩(香港)에서 전주곡을 올렸던 어용 문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새로운 형태의 문단은 이러한 어용 문예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확산에 일조한 신문, 잡지의 역할에 힘을 입고 급속도로 성장해갔다. 당시 신문 잡지의 발행 중심지가 상하이였던 까닭에 초기 평화문학의 선전의 본거지는 상하이였다.

그런데 최초의 어용문단 조직은 난징에서 출범했다. 평화문학을 조직의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최초의 문단 조직은 “중국 작가 연의회(中國作家聯誼會)”였다. 명칭만 보아서는 연성 조직으로 비치는 이 단체는 기관지 《작가(作家)》를 발간하며 왕징웨이 정권의 직접적 비호를 받으며 당시 문단을 살벌하게 조직화 했다. “중국”이라는 전국적 타이틀을 앞세운 점만 보더라도 이 조직의 야심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난징에 본부를 둔 “중국 작가 연의회(中國作家聯誼會)”의 문화권력은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상하이로 옮겨가고 만다.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영미 타도를 선전하며 상하이를 함락 시킨 일본의 정세를 감안하면 이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일본 정권의 꼭두각시였던 왕징웨이 정권의 힘은 일본의 바람개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징 시기 화평 문학의 이념은 왕징웨이 국민 정부의 이념이었던 “和平”, “反共”, “建國”을 충실히 실천하는 문학으로서 “抗戰無益”, “抗戰必敗”를 선전하는 문학이었다.

1942년 3월 왕징웨이 정권의 핵심 선전 요원이었던 주푸(朱朴)가 상하이에서 월간 《고금(古今)》(얼마 지나지 않아 반월간으로 바뀜.)을 창간하는 것을 계기로 난징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평화문학은 상하이에서 실천적 입지를 확보했다. 이 점은 왕징웨이가 바라고 있던 바이거니와, 실제로 왕징웨이는 이 잡지에 중요한 글을 기도하는 주요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고금(古今)》은 곧 베이징, 난징, 상하이의 어용문학 작가를 망라하는 주요 작가들을 필진으로 포진하였다. 이로써 어용문학의 중심이 난징에서 상하이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며, 이는 실제로 당시 전 중국의 어용문학의 중심이 상하이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동 시기의 문학은 대동아성전을 충실히 보위하는 “대동아문학”이었음은 부언의 여지가 없다.

앞에서도 언급 했지만, 1944년 들어 어용 문인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난징발로 선포되었다. 다시 문화 권력의 중심이 난징으로 이양된 형국이었다. 실제로 “南京作家聯誼會”, “上海作家聯誼會”, “華北分會”가 중국 작가 총회 성격을 띤 중국문학협회 아래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 문인들의 소극적 참여와 내부 반발로 이 조직은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가로 놓여 있다. 하나는 1944년 연초에 일본의 평론가 片岡鐵兵이 저우쥘런을 비판한 글을 일본문학보국회의 기관지가 게재한 사건에서 비롯된 중일 문학자 간의 갈등 국면이고, 다른 하나는 2차 대전의 형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전쟁의 지형도이다. 실제로 제3차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4년 연초에 열기로 예정하고 저우쥘런을 대회장으로 내정해 두었던 터였다.(이 점은 다음 절에서 상세

한 논의가 뒤따를 것이므로 이 정도만 밝혀둔다.)

1944년 가을 이래로 2차 대전의 형세가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점 또한 작가들이 대동아문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이다. 1944년 10월 《古今》이 정간한 사건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11월 왕징웨이 정부 선전부에서 중국 문학협회의 “中國文學年會”를 겨우 개최하였고, 제3차 대동아문학자대회도 개최하였으나, 년회가 겨우 하루만 열린 점, 게다가 제3차 대동아문학자대회 전날 가까스로 열림 점 등 이와 같은 전후 사실은 전국성 문단 조직 건립에 대한 호소가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한 권력 중심부의 부질없는 몽상에 지나지 않은 계획이었음을 잘 말해준다.

4. 臺灣 : 臺灣文藝聯盟에서 臺灣文藝家協會로

주지하다시피 타이완의 신문학은 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창간된 《臺灣靑年》(1920, 일년 뒤 《臺灣》으로 개제)의 출범과 ‘대만문화협회’의 설립(1921)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진다. 초기의 타이완 신문학은 반봉건 사상을 담은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賴和의 작품이 그 대표가 될 터이다.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처한 타이완의 지식인들은 1928년 일본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NAPF)의 기관지 《戰旗》 대만판 출판을 고비로 급속도로 반제 투쟁 노선을 걷게 되는데, 1931년 만주 사변은 일본의 권력과 타이완의 반제 운동이 충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비껴 말하면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한 것이다.

1937년 중일 전쟁의 발발은 타이완의 문단에 비판적 사실주의의 씨를 말리는 계기가 되며, 이후 타이완에는 ‘황민문학’ 내지 ‘황도문학’으로 불리는 일제 어용문학이 판을 치게 된다. 그럼 타이완의 어용 문단은 만주국과 화동지구처럼 일제의 통제하에 조직적으로 전개 되는가? 잠정적 결론이지만, 조직적 측면 보다는 자발적 분출을 조직화 한 것이라는 게 필자의 중간 결론이다. 여기엔 1894년부터 오랜 기간 일본의 근대문화가 이

식된 측면과 1661년 이래 명(明), 청(淸)의 통치를 거치며 ‘중국어화’한 사회에서 문단의 헤게모니를 형성한 한문학 전통의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은 1895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1936년 여름까지 문화적 탄압은 국부적으로 진행되었다. 1936년 6월 《대만신문학》 중국어판이 폐간되고, 1937년 1월 7~8일 《대만신민보》 중국어판이 폐간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타이완에서 일제의 문화 탄압이 본격화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황민문학으로의 반강제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른 없는 사건이었다. 시기적 측면에서는 중국 내지와 ‘만주국’, ‘타이완’ 지역의 문화 통치는 동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타이완 지역의 어용문학은 강압의 결과로 불가피 선택된 측면보다는 준비된 문인들에 의한 어용 문단의 조직화 성격이 강하다. 이 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만문예가협회의 창립(1939.12.4)을 들 수 있다. 대만제국대학교수, 대만총독부, 총독부경무국 국장, 등 일제 관원들이 대거 고문으로 배치되고, 타이완에 거주하는 일본 문인들과 저우진뱌(周金波), 룡잉중(龍瑛宗), 황더스(黃得時), 양윈핑(楊雲萍) 등 타이완 출신 작가들이 함께 조직한 이 단체는 당시 타이완 문단을 어용 문단화 하는 효시가 되었다. 이어 1941년 4월 9일 타이완에서는 “皇民奉公會”가 출범하여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였다. 동월 19일 기관지 《新建設》을 창간하였다. 이와 호응하여 1943년 2월 “臺灣文學奉公會”가 출범하였고, 1943년 2월 일본문학보국회 臺灣支部가 발족하였다. 일본문학보국회 臺灣支部가 발족한 사실은, 타이완이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은 식민지라는 범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그 어떤 지역보다 타이완의 지위가 특수했고, 타이완 문단 자체적으로도 훨씬 일본화한 점이 강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타이완 황민문학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전통 한학 문인들의 참여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점은 명, 청의 지배를 받았지만, ‘5.4문화운동’의 직접

적 세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근대화 세례를 받은 타이완의 특수한 역사와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 한시는 일본 통치하에서 지식인이 느끼는 민족정체성의 도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 통치가 스며드는 유리한 장구 구실도 했다는 점이다. 당국의 합법적 보장을 부여받으며 개최되었던 한시대회는 스스로도 당국도 모두 자각적으로 필요로 하던 것이었는데, 당국의 소용이 더 유효한 것이었다고 보여 진다. 조선, 만주국 시찰 명목으로 여행 자격을 준 것은 선물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Ⅲ. 맺음말

거칠게나마 관념적 동아시아론을 생산하고 보급한 친일문학 단체 조직의 분포 및 변화 과정에 대해 정리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식민성과 탈식민성에 대한 연구가 친일문학에 대한 연구로부터 충실히 진행 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말미암는가? 그것은 바로 정치·경제·사회·교육·종교 등과는 달리 문학 분야는 작품과 행적이 가장 분명하게 남아 당시 역사의 흔적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데서 근거를 갖는다. 기록과 증빙자료가 빈약했던 식민통치시기의 기술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문학 영역은 작품을 발표한다는 활동원칙 때문에 자료를 발굴하고 검토하기에 가장 용이한 분야에 속한다. 바로 이 점이 식민성 연구에서 선진성을 지니는 까닭이다.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식민성과 탈식민성에 대한 연구는 우선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아우르는 대비적 시야 속에서 진행되어야 진정한 동아시아의 근대 나아가 동아시아 근대 국민문학의 성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학사도 그러한 성격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옥석을 가릴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족의 운명이 역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창조적 사고를 통해 좌우된다는 인류사의 준엄한 경험을 비출 때, 동아시아 역내의 식민 역사를 공유 하였던 대만과 중국 동북의 '만주국' 역사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써 한민

족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연구자의 궁극적 시각이 역사의 어두운 면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 연구를 통한 건강한 민족사의 전망에 있음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본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하에서 집필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향후 항일문학 대 친일문학이 아닌 반전문학 대 친일문학의 대비 속에서 친일문학이 놓인 지점을 파악하는 데 후속과제의 중심을 놓고 관련 논의를 심화 시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친일문학 연구가 항전(抗戰)이나 한간(漢奸)이나, 라는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중화민족주의 문학사 구도에 갇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1. 작품집

- 李南衡 主編 (1979) 《日據下臺灣新文學》[明集 1-5], 臺北, 明潭出版社.
- 張恒豪 主編 (1991) 《臺灣作家全集》[日據時代·短篇小說卷 1-10], 臺北, 前衛出版社.
- 鍾肇政 葉石濤 主編 (1979~1982), 《光復前臺灣文學全集》[1-12], 臺北, 遠景出版社.
- 張毓茂 主編 (1996) 《東北現代文學大系 1919~1949》[1-14], 沈陽, 沈陽出版社.
- 錢理群 主編 (2000) 《中國淪陷區文學大系》[史料卷],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 錢理群 主編 (2000) 《中國淪陷區文學大系》[評論卷],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 周作人 (2002) 《談虎集》(止庵 校訂),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 周作人 (2002) 《葯堂雜文》(止庵 校訂),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 周作人 (2002) 《知堂回想錄》[上·下](止庵 校訂),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 교육출판기획실 (1992), 《교과서와 친일문학》, 서울, 동녘.
- 김규동 김병걸 편 (1986), 《친일문학작품선집》[1], 서울, 실천문학사.

- 김규동 김병걸 편 (1986), 《친일문학작품선집》[2], 서울, 실천문학사.
- 김재용 김미란 노혜경 편역 (2003)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2》, 서울, 亦樂
- 김재용 김미란 편역 (2003) 《식민주의와 협력-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1》, 서울, 亦樂
- 이광수 (1995)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 (이경훈 편역), 서울, 평민사.
- 이광수 (1995)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이경훈 편역), 서울, 평민사.
- 임종국 편 (1987) 《친일논설선집》, 서울, 실천문학사.
- 최삼룡 편 (2002)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 전집》[친일문학권],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 연구서

2-1. 중국 대륙

- 杜道明 (2003) 《中國古代審美文化攷論》, 北京 西苑出版社
- 李炳海 (1997) 《民族融合與中國古代文學》,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 金時俊 (1992) 《中國現代文學史》, SEOUL, 知識産業社.
- 전형준 (2004)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보는 중국문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曠新年 (1998) 《現代文學與現代性》, 上海 上海遠東出版社
- 毛澤東 (1966) 《毛澤東論文藝》,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申正浩 (2005) 《中國現代文學研究的基本視界》, 臺北, 人間出版社.
- 진중계 손창희 주편 (2002) 《인물로 보는 중국현대소설의 이해》(김영문 이시환 조성환 외 공편), 서울, 亦樂.
- 申正浩 (2005) 《중국현대문학의 근대성 재인식》,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賈植芳 (1989) 《中國現代文學社團流派》[上·下], 江蘇教育出版社.
- 劉心皇 (1985) 《抗戰時期淪陷區地下文學》, 臺北, 正中書局
- 徐翔 黃萬華 (1995) 《中國抗戰時期淪陷區文學史》,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 張 泉 (1994) 《淪陷時期北京文學八年》，北京，中國和平出版社。
- 陳青生 (1995) 《抗戰時期的上海文學》，上海，上海人民出版社。
- 張菊香 張鐵榮 (2000) 《周作人年譜(1885~1967)》，天津，天津人民出版社。
- 錢理群 (1991) 《周作人傳》，臺北，業強出版社。
- 錢理群 (1994) 《周作人論》，臺北，萬象圖書股份有限公司。
- 조너선 D. 스펜스 (1998) 《현대중국을 찾아서》[2], 서울, 도서출판 이산,
- 秦 風 編著 (2005) 《民國南京 1927-1949》，上海，文匯出版社，
- 吳雁南 馮祖貽 蘇中立 郭漢民 主編 (1998) 《中國近代社會思潮(1840~1949)》[第四卷]，長沙，湖南教育出版社，
- 余子道 柳其奎 曹振威 編 (1985) 《汪精衛國民政府“清鄉”運動》，上海，上海人民出版社(內部發行)
- 黃美貞 張雲 編 (1984) 《汪精衛國民政府成立》，上海，上海人民出版社(內部發行)

2-2. ‘만주국

- 朴永錫 (1978) 《萬寶山事件 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 尹輝鐸 (1996) 《일제하 “만주국” 연구》，서울, 일조각。
- 김경일 윤휘탁 이동진 임성모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서울, 역사비평사。
- 張志强 主編 (2004) 《偽滿洲國的“照片內參”》，濟南，山東畫報出版社。
- 岡田英樹 (2000) 《文學にみる“滿洲國”の位相》，東京，研文出版 岡田英樹 (2001) 《偽滿洲國文學》(單叢林 譯)，長春，吉林大學出版社，2001年 2월。
- 山田敬三 呂元明 主編 (1992) 《中日戰爭與文學》，長春，東北師範大學出版社。
- 馮爲群 王建中 李春燕 李樹權 編 (1992) 《東北淪陷時期文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沈陽，沈陽出版社。
- 孫中田，逢增玉 黃萬華 劉愛華 (1999) 《鏡铐下的繆斯-東北淪陷區文學史

網», 吉林大學出版社.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Berkeley &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tsusaka, Yoshihisa T. (2001) *The Making of Japanese Manchuria, 1904~1932* Cambridge &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3. 타이완

陳映真 (1998) 《清理與批判》, 臺北, 人間出版社

呂正惠 (2002) 《殖民地的傷痕》, 臺北, 人間出版社.

葉石濤 (1987) 《臺灣文學史綱》, 高雄, 文學界雜誌社

曾天富 (2000) 《일제시기 대만좌익문학 연구》, 서울, 세종출판사.

彭小妍 (1996) 《認同·情慾與語言》, 南港,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籌備處.

Leo T. S. Ching (2001) *Becoming "Japanese"*, Berkeley &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4. 한국

林鍾國 (1966) 《親日文學論》, 서울, 평화출판사.

林鍾國 (1982) 《日帝侵略與親日派》, 서울, 圖書出版? 史

林鍾國 (1985) 《日帝下的思想壓迫》, 서울, 平和出版社.

金在湧 (2004) 《협력과 저항- 일제 말 사회와 문화》, 서울, 소명출판

김윤식 (1986)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이경훈 (1998)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서울, 태학사.

김윤식 (2004) 《일제 말기 한국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김재용 김화선 노혜경 이상경 이선옥 이재명 한도연 (2003)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서울, 亦樂.

구중서 최원식 (1997) 《한국 근대문학 연구》, 서울, 태학사.

-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1995) 《다시 읽는 역사문학》, 서울, 평민사.
오오무라 마쓰오 (2001) 《운동주와 한국문학》, 서울, 소명출판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지음 (2003)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서울, 소명
출판.
東亞日報編輯部 편 (1976), 《開港100年年表 資料集》, 서울, 東亞日報社.

2-5. 일본/아시아

- 實藤惠秀 (1943) 《明治日支文化交渉》, 東京, 光風館 昭和18年5月.
尾崎秀樹 (1971) 《舊植民地文學の研究》, 東京, 勁草書房.
王向遠 (2001) 《二十世紀中國的日本翻譯文學史》, 北京, 北京師範大學出
版社.
王向遠 (2005) 《日本對中國的文化侵略》, 北京, 昆侖出版社
王向遠 (2005) 《“筆部隊”和侵華戰爭》, 北京, 昆侖出版社.
王向遠 (2005) 《日本右翼言論批判》, 北京, 昆侖出版社.

-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2003) 《가네코 후미코》(정선태 옮김), 서울, 도
서출판 산치림.
미우라 노부타카, 가스야 게이스케 엮음 (2005)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
가》(이연숙 고영진 조태린 옮김), 과주, 돌베개.
薄井 由 (2001) 《東亞同文書院大旅行研究》,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竹內好 (2004) 《일본과 아시아》(서광덕 백지운 역), 서울, 소명출판.
竹內好 (2005) 《近代的超克》(李冬木 趙京華 孫歌 譯, 北京, 三聯書店
고모리 요이치 (小森陽一) (2004)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송태욱 옮김), 서울, 뿌리와이파리.
마루야마 마사오 (1996) 《일본의 사상》, 한길사.
마루야마 마사오 (1999)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강창일 (2002) 《근대 일본의 조선침략과 대아시아주의》, 역사비평사.
高樂才 (2000) 《日本“滿洲移民”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 朝鮮總督府 (1938) 《漢口攻略! 和從今以後的覺悟》, 京城 朝鮮總督府
- Herbert P. Bix (2000) 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真相—裕仁天皇與侵華戰爭》(王麗萍 孫盛萍 譯), 北京, 新華出版
社, 2004年 9月.
- 崔元植 白永瑞 編 (1997) 《東亞人的<東洋>認識 一九二〇世紀》, 서
울, 文?與知性社

2-6. 기타

- Held, D. et al. (1999) Global Transformations: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Polity Press 《전지구적변환》(趙孝濟 옮
김), 파주, (주)창비, 2002년 12월.

3. 평론/논문

3-1. 타이완

- 《聯合報》, 1998년 2월 10일, 4월 2, 27일, 7월 5, 6, 7, 8일 [聯合副刊?
文化?臺], '皇民文學論戰專輯.'
- 《思想與批判叢刊》[第3輯], '國民文學專輯', 臺北, 人間出版社, 2000年.
- 송승석 (2004 a) <배회하는 식민주의 유령>, 《실천문학》, 2004년 봄호.
- 송승석 (2004 b) <일제말기 타이완 일본어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천영전 (2004) <정신의 황폐(精神的荒廢)>, 《실천문학》, 2004년 봄호.

3-2. 한국

- 김재용 (2002) <친일문학 작품 목록>,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 강명관 (1988) <일제초 구지식인의 문예활동과 그 친일적 성격>, 《창작
과비평》, 1988년 겨울호.
- 김 철 (1995) <친일문학론: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이광수와

- 백철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8, 1995.
- 김재용 (2002) <친일문학의 성격 규명을 위한 시론>, 《실천문학》 2002년 봄호.
- 한수영 (2002) <고대사 복원의 이데올로기와 친일문학 인식의 지평>, 《실천문학》 2002년 봄호.
- 박수연 (2002) <근대 한국 서정시의 두 얼굴>, 《실천문학》 2002년 봄호.
- 조정래 (2002) <용서는 반성의 선물>,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 김재용 (2002)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친일문학-서정주의 친일문학에 대하여>, 《실천문학》 2002년 여름호.
- 김윤식 (2002) <작가와 말의 관계에 대한 임화의 태도>,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 김재용 (2002) <친일문학의 자발성과 내적 논리>, 민족문제연구소 주관 광복 57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2002.8.14)
- 이상경 (2003)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실천문학》, 2003년 봄호.
- 백낙청 (1999)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 《창작과비평》, 1999년 가을호.
- 사에구사 도시카쓰(三枝壽勝) (2000) <8·15 이후의 친일파 문제-해방후의 한국문학>, 《사에구사 교수의 한국문학 연구》(沈元燮 역), 서울, 베들북.
- 최수일 (1995) <해방 50주년과 친일문학의 논의>, 민족문학사연구, 제 18호, 1995년.
- 최원식 (1999) <1910년대 친일문학과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제14호, 1999년
- 최원식, 김동노, 성민엽, 한기형 (1998) <한국문학에서 식민지 근대와 민족문제>, 《민족문학사연구》[제 13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8년.
- 林熒澤 (2000) <國學的成立過程與對實學的認識>, 《實事求是的韓國學》, 漢城, 創作與批評社.

최원식, 정과리, 황종연, 홍정선 (2001) <한국근대문학 100년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동서문학》[제31권 제1호], 동서문학사, 2001년(봄호).

3-3. 아시아/일본

全炯俊 (2000) <韓中文學與東亞文學: 自我認同與傳統/近代的問題爲主>, 《作爲發見的東亞》, SEOUL, 文學與知性社

王向遠 (2005) <日本的“筆部隊”及其侵華文學>, 《中日比較文學?究資料彙編》(饒?子 王琢 編), 杭州, 中國美術學院出版社

<中文提要>

目前, 在中國大陸學界對“漢奸文學”的看法大約可以歸納三種不同類型。第一、“限量論”, 即認爲從中國現代文學的整體規模角度來看, “漢奸文學”作家與有關作品的數量占得不多, 極其有限, 因此“漢奸文學”談不上是什麼另類文學, 文學史可以不談。第二、“無價值論”: 把“漢奸文學”看作反動、反民族文學, 因此持類似見解的學人嚴厲表示不值得去研究“漢奸文學”, 不值得編入大系的體系內。第三、“地區文學史論”, 即把“漢奸文學”看作當地文學史發展史的一部分, 簡單地理解爲上下時期文學發展過程中出現的當地作家主導的另類文學。

以上三種見解都包含著嚴重的盲點。那麼, 中國大陸學術界的局限起源於何處? 這與個別學者的治學態度有關, 還是與國家理性有關? 筆者認爲這問題來自於後者。就是說, 它們認爲“漢奸文學”只不過是在被帝國主義淪陷受害時期被動地生產的另類文學。具體地說, 它們都千篇一律站在受害者的立場談問題, 結果有意無意忽略了“漢奸文學”的內在邏輯結構。其實, “漢奸文學”本身以主動的參與意識與被動的受害意識兩者構成。

那麼, 往後中國大陸在內的東亞親日文學研究應該具有哪些問題意識呢?

筆者的思路如下幾點。第一、應該重組當時在中國境內組織、活動的“漢奸文學”團體。然後，在一個殖民地區域內部的文化霸權的轉移角度剖析殖民地文學界內部文化服務性質的變化與“發展”。當然，有關工作不能停留於一個區域內部的分析，而與境內其它殖民地類似組織相嚴密地進行比較其活動的連接與共同協力關係，最終克服“區域文學論”的局限。在考慮這些問題的時候，應該注意日本國內的國策文學的邏輯與其展開。

第二、從精神史、文明史的角度剖析“漢奸文學”兩面性，即拋開“受害者的立場”而直面“漢奸文學”的被動性質和能動性質。歷史證明當時許多作家按不同的邏輯主動地、積極地參與過所謂的“漢奸文學”陣營。不僅如此，它們在各地組織御用文學團體、社團以積極擁護了由殖民當地御用政府或者總督府發布的文藝政策。當然，他們的背後存在日本的南洋進出政策和大陸開拓政策。那麼，他們為何，換句話說，憑什麼邏輯擁護了侵略者的呢？歷史材料證明，他們的確是站在反對英美、東亞團結的口號下支持了侵略戰爭。另外，個別文人發明東亞儒教思想的現實和歷史意義，既辯護了自己“出山”的心態，又爲了民族文化作了後盾。這一切呼籲我們，“漢奸文學”應該從精神史、文明史的角度重新予以研究并解釋。

第三、“漢奸文學”的文人作家隊伍當中，不僅存在現代文學作家，還包括當時尚未停筆的傳統文人。他們的參與與擁護，從某種意義上講，遠遠超過現代作家的。他們基于傳統封建意識，站在“天時”觀念的立場而高度地美化了天皇統治時期的到來與其合法性。尤其，他們與當地封建殖民統治者和其他殖民地的傳統文人交換詩文，以間接地參與殖民地建設。如上說明，我們重新思考“漢奸文學”的時候，應該加倍留意作爲“漢奸文學”的傳統文人的殖民政權參與與其作用。“漢奸文學”的能動機制與複雜結構遠遠超過研究者的想像。

最後，應該拋開“漢奸文學”與“抗戰文學”二元結構。如果說，在戰爭的美化和煽動意義上把日本的侵華文學稱作“漢奸文學”的話，“漢奸文學”不應該叫做“漢奸文學”，而應該叫做“華奸文學”或“親日文學”。不僅如此，從這個意義上講，所謂的“漢奸文學”的對立面應存在“反戰文學”。顧名思義，“漢奸文學”不僅不能涵蓋當時多民族國家中國的反戰愛國文學的全貌，退一步說從今天的

立場來講，也不能夠發揮中華文學史的人文精神。要是將“漢奸文學”放在“抗戰文學”或者“抗日文學”的對立面，由于似乎過於強調民族主義，那一定會引起中華民族、中華文學概念的爭議。相關問題的涉及面事實上我們在書面上所能說的範圍還要大。因此，“漢奸文學”出現的意味和其亞洲精神史上的特定意義，應該在“戰爭文學”和“反戰文學”的框架重新解釋。總而言之，“漢奸文學”這個當前學術界普遍使用的文學史概念的含義與其科學性值得重新思考。

爲了對以上幾點問題提供客觀的認識平臺，本文首先初步討論各殖民地地區內部文化霸權的運作與其下培養的殖民文學組織的起源、合作、對立以及演變過程，等等。

二十世紀前半期殖民時空內共同經歷的文學史經驗并不僅僅限于臺灣和韓國。它甚至包括日本本國、中國大陸、滿洲國、沖繩、香港、東南亞，等等，不少亞洲臨近地區和國家。那麼，臺灣和韓國學術界的研究情況與中國大陸相比有何不同？至少筆者認爲，兩個國家的學術界取得的成就遠遠超過中國大陸。臺灣和韓國的學術界對這文學史問題比較全面地進行過研究和相關討論，相反中國大陸學術界對相關問題惜墨如金尚未進行全面的考察和研究。結果自然而然造成全面理解亞洲現代文學的一大障礙。直到今日在中國大陸沒有一本書專門系統地討論過自身的“漢奸文學”。不僅如此，零零散散的研究成果也僅僅歸於個別學者，它們很難成爲學術界的共同討論話題。這前前後後的狀態與臺灣、韓國的情況相比令人覺得其間存在的落差相當得大，似乎這問題與當前中國的國家理性有關。十九世紀以來，東亞細亞在歷史上共同經歷了所謂西方化的近代化進程。但是其歷史的、近代的同一性在複雜微妙的錯綜關係中由相同的和相異的東西構成。所以，只能在對它們正確的把握上獲得東亞細亞的普遍性，進而東亞細亞各國才可以得到對本國的客觀認識，并且由于西方化而喪失或毀損的自我肯定才可以回復並且重新創造出亞洲文學自身的未來。此時此刻，迫切需要重新思考亞洲現代化的邏輯與其遺產的整理，進而確立二十一世紀東亞三國的共同發展的基礎。從這個意義上講，正確理解東亞現代文學的正面、側面總體內含與其內存在的文學史問題，無疑是東亞知性的人文基石。

주제어 : 東亞現代性、親日文學、皇民文學、皇道文學、和平文學、中國現代文學、(東)亞細亞、和平、中日關係

K C I